

 금융위원회	보도설명		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  내 삶을 바꾸는 규제혁신
	보도	배포 시	배포	2021.11.4.(목)	
책 임 자	금융위 보험과장 이 동 엽(02-2100-2960)		담 당 자	서 병 윤 사무관 (02-2100-2961)	

제 목 : 「GA 판매책임 강화방안」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은
아직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(헤럴드경제 11.4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□ 헤럴드경제는 11.4일 「GA에도 보험 불판 배상책임 지운다...
수수료도 차등화」 제목의 기사에서

- ① “핵심 내용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GA에 1차 배상
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.”
- ② “수수료 차등지급 또는 환수규정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.”
- ③ “원활한 배상금 지급을 위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
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상향해 실질적인 배상 능력을 확보할
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.”
- ④ “불법 적발시 다른 GA로 계약 설계사를 이관해 제재를 회피
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계약이관 제한과 GA에 영업정지 대신
과징금을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.”라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

□ 「GA 판매책임 강화방안」과 관련하여, ‘GA에 1차적인 배상
책임을 부여하는 방안’ 등 제도개선 방안은 결정된 바 없음을
알려드립니다.

 <small>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</small>	<small>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</small>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	 <small>행정부리청 콜센터</small>
---	---	---	---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